

“얼썩! 지화자!” “얼썩구! 좋다!”
저 멀리 와이키키 해변이 내다보이고 등뒤로 보타산이 펼쳐있는 아름다운 풍광의 하와이 호놀룰루 팰름로 벨리. 이 언덕에 고즈넉히 자리잡은 한국 사찰 무량사에서 흥겨운 사물소리에 맞춰 한국말 추임새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1월 21일 오후 무량사 4층 설법전. 팽과리, 징, 북과 피리의 신명나는 가락과 김덕수사물패의 흥겨운 몸놀림에 설법전을 꽉 채운 관중들이 연신 박수를 치며 머리 김덕수씨에게 귀뿔받은 추임새를 능숙하게 넣었다. 고수가 빠른 속도로 북을 칠 때에는 빠른 박수로 장단을 맞추고 상두를 돌리면서 원을 그리며 뿔 때에는 감탄과 환호가 잇따랐다.

열기가 갈수록 더해져 삼존불 세 분 부처님과 후불탱화의 불·보살님들의 눈길까지 공연에 모아지는 듯했다.

무량사주지 도현가 창건 30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노인요양원 건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사물놀이 공연은 2시간동안 비나리, 승무, 판곡으로 진행됐으며 관중들까지 춤추며 동참한 강강수월래로 막을 내렸다.

강강수월래에서 누구보다도 멋진 어깨춤을 춘 데보라 마스터스(Deborah Masterson)은 “흥겨운 가락에 완전히 몰입했다. 공연을 보고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데보라는 1993년 열린 월드페스티벌에서 한국무용을 처음 접하면서 한국춤에 푹 빠져 무량사 사물놀이 공연포스터를 보고 일부터 찾아 왔다고 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온 이민교포 2세 에스터 탁(Esther Tak) 양. 초등학교 6학년생인 에스터는 “너무 재미있다!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하와이 무량사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20년에 걸친 불사인 문화원을 준공하고 앞으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교 원력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행사를 새해를 맞아 잇따라 열었다.

1월 2일 문화원 건물 4층 설법전에서의 삼존불과 후불탱화 삼존불사 점안법회가 시작되었다.

어법하게 부처님을 모신 후 14일에는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의 후원으로 명원다도원이 개원했다. 누구나 부담없이 들러 차 한잔을 마시며 삶을 되돌아보는 공간, 한국의 차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선미의 세계까지 느끼도록 배려된 곳이다.

14일 다도원 개원식에는 300명의 ‘예비 차인’들이 펼쳐 한국차의 심오한 맛을 느꼈으며, 서울시 궁중다례 민간문화재인 김의정 이사장이 24~28일 직접 한국 차 특강도 했다.



“얼썩구! 좋다!” 사물놀이패와 어우러져 한바탕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무량사 신도들과 현지인들.

얼썩! 흥겨운 불교 “무량하여라~”

■ 하와이 무량사 창건 30주년, 문화원 개원 기념행사 풍성



1월 21일 열린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에 환호하는 불자들. 감탄과 환호로 가득찬 법당은 감동의 무대였다.

사물놀이·한지공예전·다도체험 등 호응 현지인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8월 중순 국제세미나 개최, 미주포교 점검

무량사는 다도원에 차 사물을 두어서 차를 우리고 마시는 체험과 차와 관련된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도원 개원과 함께 문화원 3층 전시관에서는 한지예술품도 열렸다. 8일동안 열린 한지전에는 한지공예가로 이름높은 김경희와 문화생들의 작품 1백여점이 선보였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의 장삼과 서저지, 배운준, 신영옥씨 등 유명인들이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한지로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 종이와 천연염색이 갖는 아름다움과 독특한 창조성이 보는 사람을 압도했다. 전시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이것이 종이 맞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무량사는 20년동안 숙원불사이던 문화원을 드디어 준공하게 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한국전통문화원이라는 전시회와 공연, 음악회, 세미나, 교육 등을 연중으로 실시해 문화를 통한 포교에 적극 나선다. 도현 스님은 “오는 8월 김덕수 선생을 모시고 3주간 정도 신도들에게 풍물을 교육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사찰 사물놀이팀을 만들어 하와이에서 벌어지는 거리행사나 사찰행사에 동참해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교포들에게는 우리 가락을 익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차특강과 다례회도 열며, 꽃꽂이 강습회와 함께 법패를 서양음악과 접목시켜 현지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미주전법 40주년(2004년)을 계기로 미국 캐나다 남미를 잇는 미주포교 전진기지로서의 하와이 무량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와이만 해도 불교신자

가 10만명이 넘는다.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종단 차원에서 본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종단 안팎에서 기대하는만큼의 역할을 하기 위한 원력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량사는 포교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계종단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주포교를 점검하는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1~14일 열리는 ‘해리포교(미주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국제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버스웰, 루이 랭카스터 등 한국불교에 밝은 학자들이 대거 초청된다. 40주년을 맞은 미주포교를 점검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 창건 30주년을 맞은 무량사는 문화원 준공을 기념하고 노인요양원 건립을 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법회를 9월 24일로 잡아놓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한국불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치러질 창건 30주년 및 문화원 준공법회와 시달타 대학 개교식은 미주포교의 전진기지를 지원한 무량사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힘찬 첫 걸음이 될 것이다. (808)735-7858

글·사진/하와이 무량사=이경숙 기자



무량사 상설전시관에서 열린 한지예술품.



무량사 명원다도원 개원식에서 다도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지인들.



무량사 명부전에서 위빠사나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들.



인터뷰

무량사주지 도현 스님

“한인불자 결집으로 전법당간 높이 세울 터”

“무량사 문화원은 미국내 한인불자들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수준높은 예술을 알리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무량사는 1985년부터 문화원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인근 주민과의 송사, 재원부족 등 어려움이 중첩돼 준공이 미뤄졌다가 20년만인 올해 드디어 숙원을 풀게 됐다.

도현 스님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한국이, 전세계에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에 빨리 문화원을 마련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한 불교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차, 법패 등을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4년제 학부과정과 2년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될 시달타 대학을 개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시달타대학·한국선방원-원 효과 기대

스님은 “시달타 대학은 한국불교의 선교 교학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차별화·전문화시켜 현지인들에게 한국불교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포교대상인 교포 2·3세대와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에 쉽지 않은 일. 그래서 가장 거부감이 없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를 매개체로 해야 한다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스님은 문화원이 준공되면 영어법회와 참선법회도 정기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도현 스님은 한인노인요양원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 한국노인불자들이 병에 걸리면 갈 수 있는 요양원이 없어요. 치매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인요양원 한 곳이 있고 노인병에 걸리면 일반요양원에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부처님 사진을 안고 기독교요양원에 들어갑니다.”

무량사는 요양원을 짓기위해 절 근처 민가주택을 사놓았다. 은행대출을 받았기에 그 대출이자 갚기가 버겁다는 스님은 그래도 “절 초창기부터 불사에 동참하고 일귀는 노보살들이 병든 몸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편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게 무량사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직도 무량사는 곳곳이 불사중이다. 때로는 목수로,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운전기사 등 ‘무량사 머슴’을 자처하며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도현 스님은 무량사 태평선원에서 동안거중인 10명의 정진수좌들을 외호하는 일이 가장 보람있다고 말한다.



www.njutcm.co.kr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선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2월 1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불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 헤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 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 設 立, 분교장 취임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錫, 國際教育學院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주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 11일-11월 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瑤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 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 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